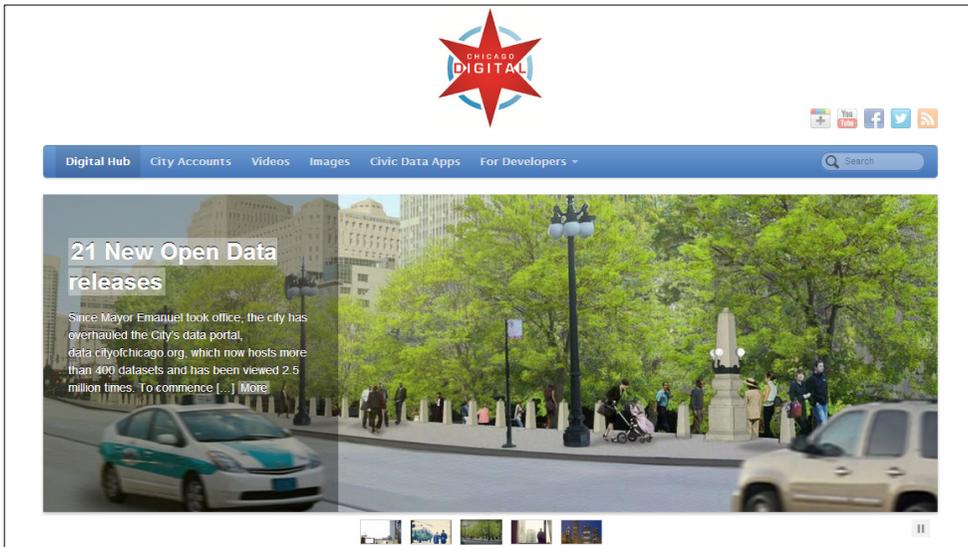


헤드라인뉴스 (행정·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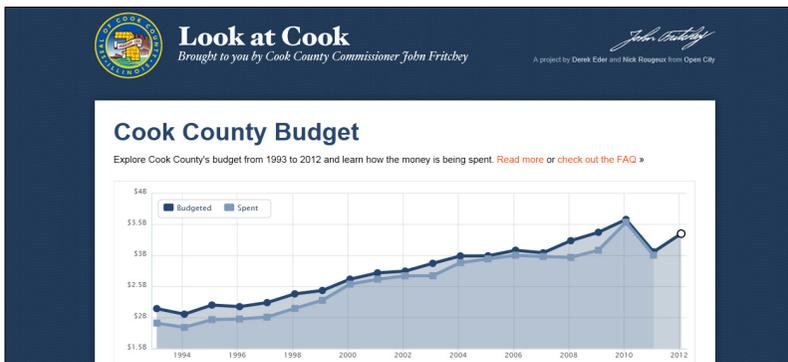
1.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디지털기술 개발 촉진 및 공유를 위해 '시카고 디지털 허브' 구축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市가 보유한 모든 행정데이터, 데이터를 가공하는 디지털기술, 데이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 등을 '시카고 디지털 허브'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해 정보의 투명성,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 市는 디지털 자원을 공유하는 'Chicago Digital'을 구축해 시민이 市가 보유한 행정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市와 사기업이 함께 개발했던 디지털기술을 공개해 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시민이 市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Digital.CityOfChicago.org 웹사이트>

- Chicago Digital은 市の 부서별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증대시켰으며 데이터는 공무원 봉급, 범죄 현황, 교통데이터, 건물 현황 등 400종류에 이릅니다. 데이터는 표, 차트, 원시데이터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러한 데이터 공유는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공유를 촉진하고 市の 모든 정보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음. Chicago Digita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예로, 市の 재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해 市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임.
 - 또한 市の 공식 행사 및 시장(市長)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비디오 스트리밍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데이터 공유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기술을 공개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기반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다시 市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돕고 있음.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 Cook County의 재정보름>

(<http://digital.cityofchicag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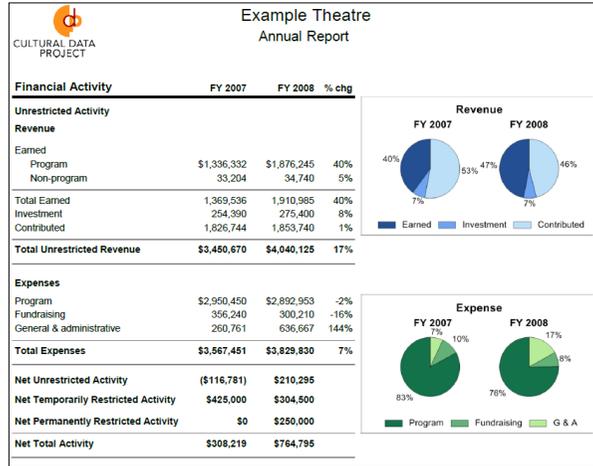
(<http://lookatcook.com/#!/?!/?year=2012&viewMode=officer>)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13/mayor_emanuel_announcescitynamed2012cleanfuelschampion/mayor_emanuel_launcheschicagodigitalwebsitetoconnectpublictocity.html)

문화 · 디자인

2. ‘문화데이터 작성 지원 프로젝트’ 시행 (뉴욕市)

- 미국 뉴욕市는 문화 관련 비영리단체나 개인, 재단 등이 웹 베이스로 역사 및 재정 관련 데이터를 손쉽게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데이터 작성 지원 프로젝트(Cultural Data Project: CDP)를 시행함.
 - CDP는 펜실베이니아주 문화커뮤니티의 요구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며, 문화부문의 투자자, 후원자가 쉽게 관련 사업이나 단체를 찾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손쉽게 자신들의 재정상태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됨. 현재 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음.
 - 개별 단체나 기관은 짧은 시간에 재정상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손쉽게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됨. 또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음. 유사 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임.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연간 재정보고서 양식의 예>

- 市の 이러한 시도는 문화 관련 비영리단체나 기관들이 재무 관련 서류 및 연간 보고서 작성, 기타 공식 서류 작성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후원 기관과 정부, 유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

www.nyc.gov/html/dcla/html/funding/cdp.shtml

www.culturaldata.org/

www.nysculturaldata.org/registration.aspx

소외지역에 문화혜택을 주는 문화정책 및 문화협력지침 시행 (파리市)

- 프랑스 파리市는 소외지역에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취약지역 문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획하는 연간 15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75개의 지역 시민단체와 사회센터 등이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음.
- 소외지역 문화정책의 목적은 ① 참여와 문화생활이 결합된 근린문화시설 설치나 개발을 통해 문화 발전과 문화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② 예술활동과 문화전파활동 등을 통해 문화시설의 접

근성을 높이고, ③ 외국인,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술문화 행사 및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교류를 확대하며, ④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생활환경, 도시정비, 문화유산, 건축 등을 함께 다루는 창의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것임.

- 이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이 이루어짐.

- 먼저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함. 소외지역의 주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센터연합, 시민단체, 청소년선도위원회 등을 참여시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이주노동자들의 집, 이민자회관 등도 문화향유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용됨. 영화사업단은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펼치며, 영화기기 이용자 교육을 실시함. 도서관, 구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적박람회가 열리기도 하고, 아동을 위한 클래식 첫걸음 등이 펼쳐지기도 함.
- ‘문화협력지침 2009~2011’을 체결함. 취약지역 문화정책 통합대표단, 문화사업부, 영화사업단이 참여한 문화협력지침이 2009년 11월 19일 조인됨. 세 기관은 현장의 문화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市 문화시설 이용 등을 통해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협력함.

- 이들 정책의 목표는 문화 접근성 향상, 아마추어 예술활동 장려, 교육활동 개발, 이민자 문화의 재평가 및 가치 부여, 장기 파트너십 장려 등임. 市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함.

- 취약지역 문화정책 통합대표단의 경우 문화 분야의 협회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함. 사회결속도시 협정을 맺은 지역과 취약지역 문화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문화활동에 매년 25만 유로(약 3억 5200만 원)를 할당함. 사회통합 분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24만 7000유로(약 3억 4800만 원)가 할당됨.
- 市 문화사업부의 경우 취약지역 문화정책 관련 프로젝트에 연간 17만 유로(약 2억 400만 원)를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문화활동에 연간 15만 유로(약 2억 1000만 원)를 지원함. 이외에도 취약지역 문화정책이 적용되는 해당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영화사업단은 소외지역의 시민단체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함.
 - 이러한 지원을 통해 펼쳐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근린 문화센터 그랑 빠르께(Grand Parquet) 개발 : 18區의 문화시설인 그랑 빠르께는 문화행사 거점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생생한 공연을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함. 다양한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둠.
 -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지역 공연 : 파리와 근교 교원을 대상으로 미니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습 초대, 아틀리에 등 여러 문화행사를 주최함.
- (www.paris.fr/politiques/organigramme-des-directions-services/direction-des-affaires-culturelles-dac/culture-et-quartiers/rub_5395_stand_13543_port_11613)
- (Charte de cooperation culturelle(2009/2011), Ville de Paris)
- (Bilan de la charte de cooperation culturelle 2009-2011, Ville de Paris)
- (Charte de cooperation culturelle(2009/2011), Communiqu de Presse, Ville de Paris)

행정 · 재정

3. 찾아가는 시청 프로그램인 ‘City Hall to Go’ 운영 (미국 보스턴市)

- 미국 보스턴市는 2012년 12월부터 ‘City Hall to Go’라는 프로그램을 미국 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음. City Hall to Go는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Food Truck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트럭으로 도시 내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청에서 하는 민원업무의 일부를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임.



- 민원업무 대부분을 市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일 제공되는 편리함’ (Convenience Served Fresh Daily)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동식 시청 트럭’이 이러한 시민의 번거로움을 일정 정도 해소해줌.
 -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주차벌금 납부, 유권자 등록, 주민불만 신고, 출생신고 등이 있음. 또한 자동차, 가족, 주택, 애완동물, 기타 등으로 세분화된 5가지 서비스 메뉴도 있음.
 - 이동식 시청 트럭은 트위터를 통해 이동경로를 매일 공지함. 또한 커뮤니티 페스티벌이나 블록 파티와 같은 이벤트가 열릴 경우에는 고성능 인터넷이 장착된 City Hall to Go 트럭이 근처에서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www.cityofboston.gov/cityhalltogo/)

(www.theatlanticcities.com/jobs-and-economy/2013/01/overdue-convenience-day-city-hall-food-truck/4373/#)

도시 곳곳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행정정보, 긴급정보, 지역정보 등 제공 (뉴욕市)

- 미국 뉴욕市는 도시 내에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고품질 터치스크린 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市 관련 데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키오스크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市와 시민 간의 정보 공유나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채널 역할을 하는 것임. 市는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를 좀 더 사용자친화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힘.



- 스마트 스크린은 유니온스퀘어 지역에 먼저 설치되었고 2013년 봄까지 25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임. 시민이 많이 모이는 시내 중심가를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함. 기본적으로 공중전화 부스 내에 설치함으로써 전력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이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공중전화 부스 공간을 재활용함.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기차역에도 설치할 예정임.
- 모든 키오스크는 설치 지역에 맞게 기능이 제공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제공됨. 시내 지도와 실시간 태풍경고, 이벤트 알림, 버스와 지하철 도착시각 알림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함.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서 같은 긴급구조대와의 통화할 수 있음. 정전에 대비해 최소 24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백업 배터리도 설치됨.

- 스마트 스크린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는 주변 지역 비디오 감시와 환경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임.
 - 스크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을 감지해 경찰에게 통보함. 거의 360도를 커버하는 감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수상한 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할 수 있음.
 -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줌. 예를 들어, 911에서 스마트 스크린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경우 카메라를 통해 실제로 키오스크 주변에서 어떤 응급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녹화된 비디오를 조사에 이용할 수 있음.
- 스마트 스크린의 다양한 서비스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변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에 Wi-Fi 신호를 보낸다는 것임. 따라서 시민이 이 키오스크 근처에 접근하게 되면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정보,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의 도착시각이나 근처의 식당 이벤트 정보나 상설 마켓 등의 지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음.
 - 스마트 스크린의 약 25%는 광고가 차지함. 광고수익의 일부와 스마트 스크린을 이용해 영화표 예매를 하고 스마트 폰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생기는 수익의 일부는 市로 귀속됨.

(<http://citewire.net/columns/big-smart-touch-screens-zing-data-to-from-neighborhoods/>)

(www.planetizen.com/node/59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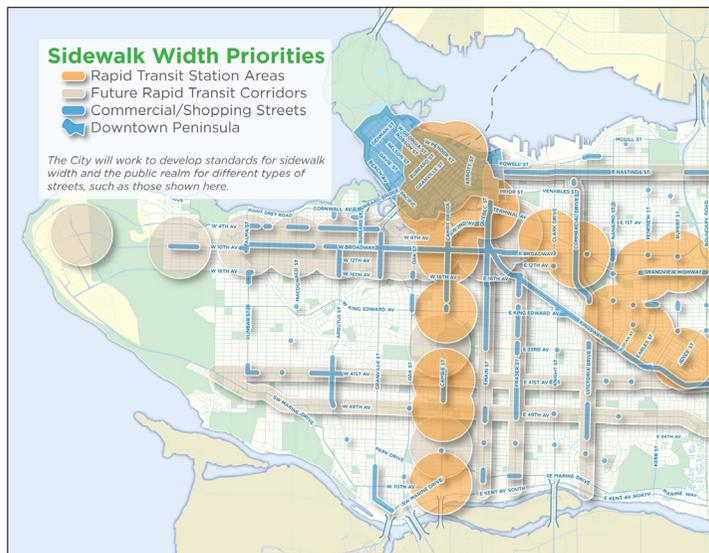
도 시 교 통

4. 자가용의존도가 낮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교통계획 2040’ 수립 (캐나다 밴쿠버市)

- 캐나다 밴쿠버市는 교통부문에 대한 장기 전략계획인 ‘도시교통계획

2040'(Transportation 2040 Plan)을 수립, 발표함. 이는 교통부문뿐 아니라 토지이용과 공공투자 부문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계획은 밴쿠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부분의 통행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바꾸고 석유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대기 질을 향상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음.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효율적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춤. 이를 통해 밴쿠버를 차 없는, 혹은 차량 의존도가 낮은 도시로 변모시킴. 또한 시민의 안전, 접근성, 건강과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구 전체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보행자도로 확장구역 계획도(일부 구간 시행 완료)>

- 교통계획과 연관된 다음과 같은 부문별 비전 수립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효과를 기대함.

- 토지이용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함.
- 보행 : 도보 통행을 안전, 편리, 효율적이며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걷기 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을 제안함.
- 자전거 :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모든 연령대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함.
- 자동차 : 점진적으로 차량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로 바꾸도록 유도함.
- 교육, 장려, 규제 : 모든 유형의 통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함.



<자전거도로 보강, 확충, 유지 계획도>

(http://vancouver.ca/files/cov/Transportation_2040_Plan_as_adopated_by_Council.pdf)

(<http://vancouver.ca/streets-transportation/transportation-2040.aspx>)

5.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교통신호 설치/운영 매뉴얼 마련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市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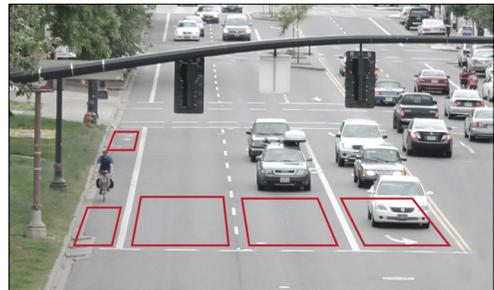
- 날로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로 인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신호체계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교통수단 계획위원회가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하는 신호체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를 발표함.
 - 기존의 교통신호는 일반적인 차량 흐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미국 전역의 16개 도시(오리건주 포틀랜드市, 시카고市,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市, 뉴욕市, 워싱턴 D.C. 등)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신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신호 설치, 운영,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다른 도시의 사례 및 경험에 의존해 왔음.
 -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자전거 전용 신호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일부 도시에서만 자전거 전용 신호를 운영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한 신호는 기존 차량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전거와 차량 흐름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용자가 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전을 향상시킴.
 - 디자인 가이드에서는 신호유형별 설치방법, 적용사례 및 가능한 신호 체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신호 표지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신호유형은 무신호 교차로와 무선통신(Beacon)을 활용한 신호로 구분되며 유형별 교통상황에 따른 효과, 지역별 적용 예시, 설치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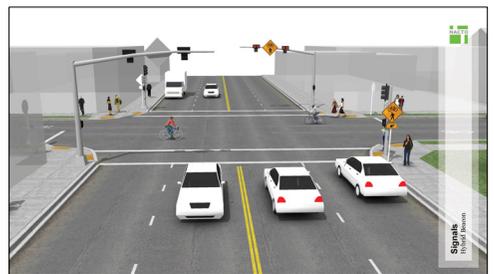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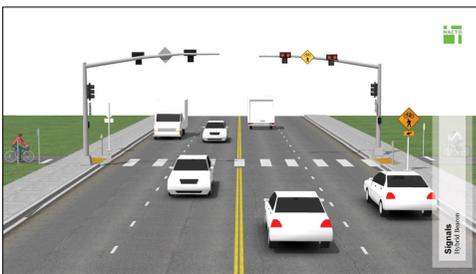
-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 비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가진 미국에서도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늘어나고 있음.



<캘리포니아 San Luis Obispo市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신호(왼쪽). 뉴욕市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신호(오른쪽)>



<포틀랜드市에 설치된 자전거 검지기(왼쪽). 포틀랜드市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검지기(오른쪽)>



<무선 송신 방식의 신호(횡단보도)(왼쪽). 무선 송신 방식의 신호(주요 도로)(오른쪽)>

(<http://nacto.org/cities-for-cycling/design-guide/bicycle-signals/bicycle-signal-heads/>)

(www.ssti.us/2012/12/increasing-bicycle-mode-share-leads-to-growing-need-for-bicycle-specific-traffic-signals/)

(<http://nacto.org/print-guide/>)

미국에서 가장 자전거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기본계획 2020’ 수립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가장 자전거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총 645마일(약 1038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시카고 자전거 기본계획 2020’(Chicago Streets for Cycling Plan 2020)을 수립함. 기본계획은 시장(市長) 직속 자전거이용 자문회를 통해 수립되었으며 현 시장 임기 중 총 160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우선 2012년 12월 14일 Dearborn Street에 48km에 이르는 2차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함.

- 자전거 기본계획은 2000년 처음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번 계획안은 2015년 계획안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모든 시민이 약 800m 이내에서 자전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시설을 설치하지만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서도 자전거 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함.
- 2020년 기본계획안에서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망과 지역 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지역망,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존을 위한 자전거 전용신호, Mixing Zone 등 세분화된 도로망과 시설로 구분해 각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과 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교육내용 및 안내 등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음.

(www.chicagobikes.org/)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provdrs/bike/news/2012/dec/mayor_emanuel_openstwo-waybikelaneinloopondearborn.html)

(www.chicagobikes.org/public/SFC.php)

집 앞 보행로 제설·제빙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 강화 (베를린市)

- 독일 베를린市는 집주인의 의무로 되어 있는 집 앞 보행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대해 2012년 겨울부터 제거 폭까지 규정함으로써 집주인의 의무를 한층 강화함. 市는 도로마다 확정된 제설·제빙 폭 지도를 제작해 市 홈페이지에 올리고 배포함. 구체적으로 지도상에 선의 색깔을 달리해 제거 폭을 제시함. 초록의 경우 제거 폭이 3미터, 연두와 빨강의 경우 1.5미터, 노랑/파랑/하늘/분홍색의 경우 1미터임.
 - 市는 2011년까지 市의 모든 보행로의 성격과 통행량을 분석해 보행자 도로를 분류함. 그리고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폭을 고려해 제설·제빙의 폭을 확정함.
 - 제설·제빙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도로청소법을 통해 의무화됨. 차로, 자전거도로와 같은 공공도로의 제설·제빙은 市 도시청소사업소 관할이지만 대부분의 보행로 제설·제빙은 길에 접한 집이나 건물의 주인 또는 제설·제빙 조건을 수용한 임차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겨울부터 보행로에 면한 집과 건물의 주인은 그동안 임의로 눈을 치우던 방식이 아니라 규정된 폭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함. 제설·제빙 작업은 본격적인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시작해야 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는 市 법규 및 안전감시청의 질서단속반에 의해 이루어짐.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유로(약 14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됨.
 - 도로가 결빙되었을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모래나 잘게 부순 돌조각을 사용해야 함. 염화칼슘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주변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됨. 보행로뿐 아니라 집안 마당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됨. 市는 개인이 염화칼슘을 사용할 경우 최고 5만 유로(약 705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함. 염화칼슘은 도시청소사업소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www.berlin.de/special/immobilien-und-wohnen/nachrichten/2347304-2340281-winterdienst-auf-gehwegen-karte-zeigt-sc.html)

(www.berlin.de/imperia/md/content/balichtenberghohenschoenhausen/buergerservice-ordnung/strreing_berlin_kodifiziert_nach_novelle_18.11.2010.pdf?start&ts=1323683586&file=strreing_berlin_kodifiziert_nach_novelle_18.11.2010.pdf)

(www.berlin.de/special/immobilien-und-wohnen/nachrichten/2856714-2340281-winterdienst-schneeraeumen-ist-pflicht-s.html)

(www.berlin.de/special/immobilien-und-wohnen/ratgeber/2140609-893025-winterdie-nst-auf-gehwegen-wieviel-meter-.html)

도시계획 · 주택

역사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뉴욕市)

- 미국 뉴욕市는 민간 NGO인 The 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 주관으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역사건축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왔는데, 2012년도에는 이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서로 발간함.
- 뉴욕에는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들이 많지만 노후화에 의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이전에 지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이에 대해 오랜 기간 기술적, 정책적 지원이 없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市는 건물 소유주, 이용자 및 관련 기술자와 도시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 작성 시 건물 관리비 절감, 기존의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을 것,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것(건축자재를 훼손하지 않을 것), 에너지 절감, 건물 이용자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시킬 것, 소음을 최소화할 것 등을 주요 목표로 함. 가이드라인은 연립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역사건축물을 주요 대상으로 했으며 건축물을 부분별로 나누어 에너지 절감 방법 및 디자인, 기술적

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건물 벽면 및 지붕, 창문과 문, 냉난방, 조명 및 전기, 배관 및 물 효율성, 지속가능한 경관 및 건물 외관, 기타 시설, 비용 등으로 상세하게 나누어 기술되어 있음.

- 창문 및 문 :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나가거나 들어오는 열로 인해 건물 냉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Blower Door Test를 통해 열손실 정도를 측정하고, 건축자재별로 적합한 냉난방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냉난방시설 : 오래된 건축물은 개별 냉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난방비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중앙냉난방 설비를 갖출 것을 권장함. 중앙냉난방 시설은 개별 냉난방보다 4배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www.nyc.gov/html/lpc/downloads/pdf/pubs/Manual%20-%20Greening%20Rowhouses%20-%202012.pdf)

(http://mas.org/thinking-of-greening-your-historic-rowhouse/?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thinking-of-greening-your-historic-rowhouse)

도심 상권과 여가시설, 문화유적, 주거, 교통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통(通)하는 레스터 만들기’ 사업 추진 (영국 레스터市)

- 영국 레스터市는 도심 상가의 인도를 두 배로 확장하고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기로 함. 이번 시범사업은 상권과 여가시설, 문화유적, 주거와 교통을 서로 연결하는 ‘통(通)하는 레스터 만들기’(Connecting Leicester) 계획이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음.

- 市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위해 2012년 10월까지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받았으며, 지역별로 전시회를 열고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심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중 일부인 Newarke Street의 인도를 확충하고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함.

- 市는 각기 다른 기능이 있는 도시구간을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심을 정비하는 ‘통하는 레스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함. 각기 다르게 진행되어 온 씬지공원 만들기 사업, 도심 유적지 복원 사업, 도심 상가 활성화 방안이 물 흐르듯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임.

- Newarke Street의 경우 유적지가 있는 구도심 지역과 현대적인 상권이 있는 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길목으로서 차도가 인도보다 우선 개발되었음. 市는 인도를 확장하고 아름답게 꾸며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로 재탄생시킬 예정임.
- ‘통하는 레스터 만들기’ 사업에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市 곳곳에 녹아 있는 역사의 뒷이야기, 근대사 등 레스터만의 이야기보따리를 발굴, 정리해 도심 내 박물관에 전시하고, 市 홈페이지에도 적극 게시함. 특히 도심 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 앞에 해설판을 만들어 세우고 초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장소에 얽힌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consultations.leicester.gov.uk/city-development-and-neighbourhoods/connecting_leicester/)

(citymayor.leicester.gov.uk/welcome/connecting-leicester/story-of-leicester/)

(citymayor.leicester.gov.uk/welcome/connecting-leicester/)

(www.bbc.co.uk/news/uk-england-leicestershire-20926954)

(news.leicester.gov.uk/newsArchiveDetail.aspx?id=1894)